데스크 시각

오염수 방류 논란, 사라진 책임 정치

장 필 수
사회담당 편집국장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어민 등 수산업계 종사자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정부는 일본 정부를 대신(?)해 날마다 브리핑을 열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한다. 여당은 광우병 사태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까지 거론하며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측을 향해 '괴담'이라고 항변하고, 대책 없는 야당은 단식 농성으로 맞서고 있다.

오염수 방류 문제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계의 존망이 걸린 문제인데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어디 있겠는가.

일본 정부 입장 대변하는 한국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사용하는 해저터널 공사를 완료했고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만 기다리고 있다. 다음 달 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최종 보고서를 받으면 머지않아 방류가 이뤄질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30여 년 동안 진행된다. 방류가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결정 전에 막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이다. 그런데도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는 면밀한 조사와 데이터를 근거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보다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양새다. 매일 일일 브리핑을 하는데 그제 브리핑에선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서 IAEA와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 성실 원칙에 맞지않는 태도"라고 밝혔다. 신의 성실 원칙이라니.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정부가 할 말은 아니다. 일본이나 IAEA와 방류에 대한 의견 조율을 끝냈단 말인가 의심이 들 정도다. IAEA는 핵 산업을 보호하는 국제기구다. 원자력 강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IAEA의 보고서를 액면 그대로 믿기 힘든 이유다.

국민의 건강과 주권을 책임지는 정부라면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일본 내에서 조차 방류보다 오염수를 콘크리트 등으로 고체화해 자국에 보관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마당에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국민 설득에 주력하는 것은 코미디다.

다른 나라를 보자. 일본 수산물 수입 2위 국가인 홍콩은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한데 이어 만약 방류할 경우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표명했다.

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횟집에서 회식하는 '먹방 정치'를 하고 있다.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아 보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포퓰리즘 정치'나 다름없다.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민을 향해 '괴담'이 아닌 '과학'으로 대응하라며 몇몇 원자력 교수들의 주장을 강요하는 것은 비겁한 정치다.

야당의 대응도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대결 정치에만 익숙하다 보니 오염수를 방류해선 안 될 명분을 과학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단식 농성과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의 상임위 단독 처리에 나서는 등 대증 요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형 선고" 어민들의 절규 경청해야

지난 23일 완도에선 어민 800여 명이 모여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였다. 어민들은 "일본은 4조 규모의 어민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오히려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듯 이야기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원전 오염수 결사 반대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전남은 수산물 최대 산지다. 국내 수산물 생산량의 60%가 전남에서 나오고 어업 인구의 38%, 어선 수의 42%가 전남에 있다. 살아남기 위해 원전 오염수 피해가 덜 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종(魚種)으로 바꾸는 어민들도 등장했다.

현장은 이렇듯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23일 해상 시위 현장에는 정부나 전남도 관계자도, 책임 있는 정치인도 없었다. '답은 늘 현장에 있다'는데 책임 정치는 실종됐다. 지금부터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오염수 해법이 될 것이다.

/bungy@kwangju.co.kr

은펜칼럼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박 행 순
전남대학교 명예 교수
전 카트만두대학교 객원 교수

네팔 어린이들이 한국인을 만나면 기대감과 호기심에 가득 찬 얼굴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라고 묻곤 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봉사하러 온 대학생들이 자주 가는 곳이 초등학교였고 가르치는 몇 마디 한국어 중 빠지지 않는 이 문장을 어린이들이 외웠기 때문이다.

필자가 12년 전 네팔에 객원교수로 갔을 때 재미있는 이름들을 접했다. 우선 국호, 네팔(Nepal)에 대하여 "내 팔로 네 팔을 안는다"거나 "네 팔에 내 팔을 맡긴다"는 등 재치 있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보았다. 처음 몇 년간 강의한 곳은 파탄(Patan) 왕국이 있었던 곳에 세워진 파탄 대학이었다. 이름이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이 대학은 네팔의 지역 간 의료 혜택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야심찬 신설 의과대학이었다. 의료 시설들이 집중된 도시민들과 산지 주민들의 평균 수명은 20년 가까운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의대 설립자는 자동차 열쇠 비슷하게 들리는 카-키(Karki) 박사였고 주임 교수는 공갈(Gongal) 박사였다. 네팔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이한 이름을 가진 그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추억으로 남아 있다.

박성광 명예교수가 출간한 '심장이 멎기 전, 안녕 내 사랑'에 추천사를 썼던 당시 전북대병원 신장이식센터장, 이식 교수는 "아버지께서는 내가 태어난 날이 식목일이어서 '이식'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다. 나는 이름 때문에 노력 없이(?) 이식 분야에서 소위 반절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했다.

김말자 씨는 끝순이 막내라고 너무 가볍게 촌스러운 이름을 지은 아버지께 어릴 적에는 섭섭한 마음을 품었었다. 결혼해서 어느 땐가 김밥집을 차려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뒤늦게 아버님의 예지에 감탄했다고 한다.

웃음을 유발하는 이름들에 비하면 외할아버지께서 작명가에게 받아오셨다는 내 이름은 너무 평범했다. 그러나 20여 년 전, 한 사고를 겪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 어느 날 밤길에 보도블록에 걸려 앞으로 고꾸라졌다. 우리 속담에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데 앞으로 넘어졌으니 두말해 무엇 하랴? 지나가던 행인이 일으켜 세우고 택시에 태워 주어서 동네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코뼈 골절에 윗입술을 크게 다쳐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두 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골절된 코뼈가 다시 붙도록 처치하는 과정에서 양쪽 콧구멍을 단단히 틀어막았으니 꼼짝없이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했다. 입안과 혓바닥은 바짝 마르고 코를 통한 숨길이 막힌 상태에서 삶의 질은 한 차원 밑으로 곤두박질친 느낌이었다. 그간 숨 쉬기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쉽게 생각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숨 쉬기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 활동이며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엄청난 축복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암울했던 시간들은 자발 호흡, 코로 숨을 쉬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드디어 코로 숨을 쉬게 되었을 때의 그 상쾌함, 후련함, 편안함과 자유로움에서 발견한 행복을 잊지 않도록 내 이름으로 연결시켜서 자기소개를 한다. "코로 숨 쉬는 매 순간, 박세계 행복한 순간, 박행순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를 "행복한 순간님~"이라고 불러 주기도 한다.

김춘수 시인은 '꽃'에서 다음과 같이 이름에 의미를 부여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상대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은 관계 맺기의 시작이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 고

빛나는 것에 대하여

이 중 섭
소설가

우리 또래의 친구들은 다들 새로운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 일을 하더라도 기존의 일을 계속하려 한다. 퇴직이 가까운 친구들은 당분간 쉬고 싶다는 말만 한다. 하지만 이번 중학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 S는 우리와 달랐다. 그는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하지 않기에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 당연히 참석하지 못할 줄 알았다. 모임 장소에 나타난 그는 웬걸 머리가 배코였다.

"왜? 어디 안 좋아?" 그는 사람 좋은 웃음을 보였다.

"아냐. 얼마 전에 막내가 입대를 했어." 그는 힘내라는 뜻으로 머리를 빡빡 깎았다고 했다. 아이들이 셋이던가? 막내가 늦둥인 모양이다.

"그런다고 머리를 깎아? 깜짝 놀랐잖아." 어릴 때부터 녀석은 조금 달랐다. 또래들에 비해 슬거웠다.

"자네, 글 잘 보고 있어. 글을 읽을 때마다 뿌듯하네."

SNS를 하지 않는 그가 어디에서 내 글을 읽었을까. 하긴 페이스북과 한 달에 한 번 쓰는 이 글 중의 하나일 터다.

"중학교 일 학년 때부터 난 자네를 진정한 글쟁이로 생각하고 있었네."

그때가 첫 만남이었다. 글짓기 숙제가 있었는데 수업 중에 국어 선생이 내 글을 읽었던 일을 말한다. 그는 무알코올 음료만 마신다. 이미 소맥 서너 잔을 마신 나는 교수 친구의 칭찬에 어린아이처럼 떠들어댄다. 문득 동창 누군가에게 들은 궁금한 얘기가 떠오른다.

"근데 요즘 또 대학교에 다닌다고?" 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가르치면서 몇 년 전에는 법대를 마치더니 이제 국문과에 다닌다고 한다.

"왜, 그냥 편입을 하지, 그랬어?" 내 머릿속에 자리 잡은 세상살이의 기준으로 그에게 말한다.

"아니, 처음부터 배우고 싶었어. 문학개론을 읽었던 젊었을 때의 나, 학문을 배울 때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고 싶었거든."

나와 다르게 절절함이 있다. 나도 학문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던 대학 새내기의 마음이 그리울 때가 종종 있다. 글도 잘 쓰는 그가 늦은 나이에 국문학을, 아니 문학에 대해 뭔가 줄기를, 아니 문학이란 여신의 아리따운 치맛자락을 잡으려는 듯 부럽다.

그는 고교 시절에도 학구파였다. 광주에서 자취할 때였다. 어느 겨울에 그의 자취방에 들렀더니 방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연탄을 때지 않고 생활했다. 방에는 옷과 이불을 넣을 수 있는 캐비닛과 접이식 밥상만 보였다. 상 위 벽에 종이가 두 장 붙어 있는데 한 장에는 학습 계획표가 다른 장에는 빨간 원 안에 작은 노란 원이 그려져 있었다. 노란 원의 한가운데에 '복수'라는 글자가 씌어 있었다. 자취방 골목길을 나오는데 왠지 가슴이 서늘했다.

"별거 아니네. 그때 돈이 없어 공부를 마음껏 하지 못한 것이 억울했거든." 돈에 복수한다는 말이 조금 생소하다. 가난과 그로 인한 슬픔이다. 하긴 그 시절에 가난이란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배고프고 서러웠는가. 돈 때문에 못 배웠던 한을 지금 와서 마음껏 이루려는 그를 보니 내 마음마저 새롭게 정화된 기분이다.

얼마 전에 읽었던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에 이런 구절이 있다.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행동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친구들이 가끔 참석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러 주위로 모여든다. 그는 일상적인 말로 친구들을 생각하면 언제나 힘이 난다, 항상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며 자만하지 않았고 잘 사는 사람들 편에 선 적이 없다고 얘기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가 보고 싶은 과가 있는데." 친구들이 다들 무슨 과냐고 묻는 듯 시선을 집중한다.

"간호학과를 한 번 갔으면 해." 다들 어리둥절하며 서로를 쳐다본다. 부모님이 아플 때 주사 때문에 겪었던, 아무것도 아닌 일로 한밤중에 간호사를 부르던 일들을 얘기한다. 그의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 추상적인 학문보다 실용적인 학과가 살아가는 데 더 필요하긴 하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주사 때문에 겪었던 일들이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

한껏 뇌 속에 채웠던 알코올 기운이 싹 달아났다. 머릿속이 쨍하고 울렸다.

社 說

시장 외면받는 전남 쌀 '강대찬' 대책 세워야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신품종 쌀 '강대찬'이 품질 저하 논란에 휩싸였다. 강진군은 최근 공공 비축미 선정 심위위원회를 열어 강대찬을 공공 비축미에서 제외하고, 이번 주 내로 대체 품종을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강진군은 지난해 4월 전남 지역 최초로 강대찬을 2023년 공공 비축미 수매 품종으로 선정한 바 있다.

강대찬 품종에 대한 불매 움직임은 전남에서만이 아니다. 김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RPC)은 최근 김제시 일원에 '강대찬 벼 수매 절대 불가'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했다. 최근 김제에서도 강대찬 쌀을 심는 농가가 늘었지만, 정작 RPC에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1년 '새청무'를 잇는 전남 브랜드 쌀 품종으로 개발된 강대찬은 병해충과 도복(쓰러짐)에 강해 수확량이 많고 재배하기 쉬운 명품 쌀로 알려지며 전남과 전북 지역에서 재배 면적이 확대됐다. 지난해의 경우 전남 여섯 개 시군이 강대찬을 공공 비축미 수매 품종으로 지정했지만 올해는 20개 시군으로 늘었을 정도다.

하지만 강대찬 쌀로 밥을 지은 소비자들이 '밥맛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누렇게 변하고 딱딱해진다'며 반품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품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농가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다. 강대찬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은 RPC의 수매 거부로 판로를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전남도는 재배 농가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강대찬 쌀 논란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우선 재배 농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벼 품종 재배와 취사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무엇보다 올해 수확 예정인 물량을 소비할 수 있는 판로를 다양하게 개척해 재배 농가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농가와 소비자들의 강대찬 쌀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음주 운전 부추기는 단속 예고제 재검토를

나주경찰이 실시하고 있는 음주 단속 사전 예고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목표했던 음주 운전 예방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경찰서 홈페이지에 매월 한 차례씩 '음주 단속 일정'을 공지하는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게시 글에는 음주 단속이 예정된 날짜와 장소(읍면동)가 담겨 있다. 날짜별 조회 수는 100회를 넘어설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사전 예고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는 듯했다. 지난해 나주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34건으로 전년의 47건에 비해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 들어 지난 25일까지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건보다 18.7% 늘었다. 음주 단속 적발 건수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1~6월에 적발된 음주 단속 건수는 2021년 131건, 지난해 151건, 올해 15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더욱이 단속이 예고된 지역을 피해 차량을 운행하거나 공지된 날만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사전 예고제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전 예고제 도입은 나주경찰이 처음은 아니다. 울산경찰은 지난 2010년 사전 예고제 도입 후 10개월 동안 음주 교통사고가 7.8% 증가하자 폐지하기도 했다. 다른 경찰서도 한시적으로 음주 단속을 예고하기도 하지만 나주경찰처럼 정기적으로 공지하는 곳은 없다.

나주경찰은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는 이유로 쫓고 쫓기는 불시 단속보다 음주 단속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하지만 애초 취지와 달리 음주 단속 적발이나 교통사고 건수가 느는 등 부작용이 크다면 상황은 다르다.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無 等 鼓

로봇 마에스트로

지난 2월 베를린 필하모닉 최초의 여성 지휘자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타르'(TAR)가 개봉돼 화제를 모았다. 카리스마 넘치는 마에스트로(Maestro) '리디아 타르'는 가상의 설정이었다. 관객들은 케이트 블란쳇의 신들린 연기 덕분에 클래식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 수 있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클라우디오 아바도, 레너드 번스타인, 주빈 메타, 구스타보 두다멜, 금난새, 정명훈…. 마에스트로는 거장 반열에 오른 지휘자를 의미한다. 거장들의 곡 '해석'에 따라 같은 음악도 관객들에게 또 다른 울림을 안겨 준다.

"나는 내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내 모든 신체 부위에서 그것을 느낍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작품의 첫 도입부에서 맥박이 뛰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신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온 몸이 음악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영국 작가 리처드 오스본이 펴낸 '카라얀과의 대화'(음악세계)에 나오는 내용이다. 베를린 필하모닉 종신 지휘자 카라얀은 그와의 인터뷰에서 템포와 '지휘자의 맥박'을 언급하며 고도가 높은 도시에서 녹음을 할 때 심장박동 또한 빨라졌다고 말한다. 카라얀에 이어 지휘봉을 잡은 이는 아바도이다. 카라얀과 아바도는 지휘 스타일과 베를린필을 이끌고 가는 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음악평론가 조희창은 '조희창의 에센셜 클래식'(미디어샘)에서 두 지휘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카라얀은 눈빛 하나로 제압하는 독재자 스타일이었지만 아바도는 대화를 중시하는 민주적 스타일이었다. 카라얀의 화려한 음색에 비교해 아바도는 금관이나 타악기 소리는 절제하되 리드미컬하고 명확한 사운드를 원했다."

안드로이드 로봇이 지휘하는 국악 공연이 오는 30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린다. 지휘자 최수열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로봇 '에버(EveR)6'이 함께 지휘봉을 잡는다. 인간의 창의성을 대표하는 영역인 지휘에 첨단 과학기술이 시도되고 있다. 그렇지만 심장이 뛰는 마에스트로의 '카리스마'와 '곡 해석', 단원·관객과의 교감은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송기동 예향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